

특별기고

# 박물관 기증 운동의 필요성

## 기증,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나눔의 방법



박경자  
대진대학교 박물관장

기간	연중
기증처	박물관 2층 205호 박물관 행정실
기증대상유물	1) 고문서, 고서적, 교지류, 회화류, 고고자료, 사진자료, 종교관련 유물과 지역관련 유물 2) 생활사 유물(농기구, 가구 등 전통생활용 유물)
기증방법	1) 박물관 행정실에 직접 기증 2) 유물의 크기나 무게 때문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기증 접수(유물의 운반 비용은 박물관에서 일체부담)
유물의 박물관 보관시 장점	-완벽한 도난방지시설로 개별 가문의 보관시설 보다 도난에 훨씬 안전 -온도·습도차로 쉽게 변질되는 유물을 항온·항습 장치로 일정하게 온도·습도를 유지하여 원형 보존에 유리
혜택부여	-주요 기증물에 대한 감사패 증정 -기증자의 실명을 표기하여 유물을 전시하고 보관 -후손이 유물 열람 및 관람시 편의 제공 및 유대 -각종 전시 및 유인물 발송과 기타 행사에 초청
문의처	대진대학교 박물관 031-539-2385

우리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가끔 따뜻한 소식을 들곤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꺼이 기증하고 한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소식 말입니다. 생명 나눔 운동, 그리고 어려운 곳에 손길을 나누는 봉사활동 등 많은 나눔의 방법이 있었지만, 또 다른 나눔의 방법인 유물 기증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기증이 그러하겠지만, 유물 역시 다 함께 나눌 때 그 빛을 발한다는 점에서 유물기증은 잡자고 있던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세상에 깨워주는 매우 특별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없이 귀중한 선대의 유품이거나 수집 활동 등 문화재의 소장 경위가 어떠한 기증을 결심하기까지는 소장하고 계신 분들의 큰 노력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뇌와 결심은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 교감을 통해 또 다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은 단지 나눔의 기쁨에서 그치지

는 것이 아닙니다. 박물관은 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유물의 특성상 오래도록 남아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기 마련이고 작은 부주의로도 역사적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유물은 개인적인 보존에 있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정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온도·습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박물관에서는 항온·항습 상태를 유지하여 개인의 소장·보존보다 원형 보존에 훨씬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물의 가치를 감안할 때 완벽한 도난방지시설로 유물의 본질 및 도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올해 대진대학교에서는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이 유물에 대하여 연구·전시하고, 역사적·문화적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기능입니다. 따라서 포천시의 중심에 자리한 대진대학교 박물관이 포천시의 역사와 지역 문화에 대한 배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진대학교 박물관이 진정한 역사, 지역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포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문화를 선도할 대진대학교 박물관을 포천시민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의 유물기증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함께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유물을 박물관에 기증해 주신다면 좋은 나눔의 실천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진대학교 박물관이 포천시에 뿌리깊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③

# 리우선언의 한계와, 고요와 고독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대진대학교 영문학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생경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생태적인 삶을 모두가 갈망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생활세계가 문명의 도구에 의해 잠정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닌가? 삶의 본질적인 가치인 자연적 본성과 자연 자체를 상실하고 문명세계에 식민화 되고 있지 않나? 자연이라는 원초적인 대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하면서 인위적인 문명도구에 몰려 가고 있지 않나?

사실, 생명체의 터전인 대지는 불모의 황무지로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공간은 생태주의적 토대의 일부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위적으로 진행되는 엔트로피적 공간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명의 도구들이 생명의 원천이자 양식인 자연을 황폐화 시켜 모든 생명체의 존속을 위협하면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사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자연 개발과 지배의 작업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발성에 비유하고 있다. "현대의 기술은 자연 지배적 도발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도발성은 자연에 내재해 있는 본원적인 에너지를 채굴하고 개발하며, 또한 그것을 축적하여 재분배하고 이를 재충하는 경로를 밟는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도발은 이렇게 하여 더욱 강화되고 공고해진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현대문명 비판의 핵심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위적인 산물로 부터의 단절을 추구하는 경고와 함께 자연적 본성의 복원을 요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가 자연적인 삶의 본질을 망각하고 껌데기에 불과한 외양에 너무 집착

할 때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엔트로피화는 더욱 가속화 되는 것이다. 인간이 자연적인 본성을 잃고 인위적인 태도에 젖어들수록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고향을 잃기 마련이다. 자연적인 본성인 삶의 깊이의 뿌리가 없는 곳에서는 뛰는 삶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선언'은 문명세계가 만들어 낸 전지구적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전세계인이 한마음이 되어 생태계를 살리기로 동의한 지구 최초의 실천적 행동강령이라는 점에서 '리우선언'은 지구촌 곳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존 선언인 셈이다. 리우선언의 전체 조건이자 중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내포된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행동강령에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인 기본틀을 깨트리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인간중심이 아닌 자연중심주의적 입장에서 개발이 전제로 깔려 있다. 그런데, '리우선언'의 중심 개념인 '지속 가능한 개발'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이루면서 환경보전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리우선언'이 추구하고 있는 지구환경을 살리려는 행동강령은 영구적인 확실한 지구보존의 대안은 못 된다.

현대도시의 모체인 산업사회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존생태학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위기의 치료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문명이 기술적으로 생산해 내는 부산물로부터 벗어나 원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입장에서 자연적인 본성과 자연 자체의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자연은 일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면서 인간의 정신적 고향이 되어 인간과 인간이 다시 합일하는 정신적인 힘을 솟구치게 한다. 이것이 자연이 인간에 주는 삶의 근원적인 원형이다. 자연도 인간

과 꼭 같이 살고자 하는 승업한 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을 동등한 동반자로 인정할 때 리우선언이 지향하는 이 지구상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의 영위가 가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자연적 본성의 회복은 마음의 생태학이 작용할 때 가능해진다. 마음의 힘은 직관적인 형태로 작용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어찌할 수 없는 도덕의 힘으로 또는 사물의 넓은 질서에 대한 외경심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구성원들의 마음 전체를 움직이는 마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마음의 힘은 그것의 자양분으로 고요와 고독을 필요로 한다. 마음의 움직임은 고요와 고독의 존귀함을 새롭게 각성하고 이를 익혀 나갈 때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다. 고요와 고독은 근원에 대한 명상에 젖어들 때 근원적인 힘을 발휘하고 현실의 문제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요와 고독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여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연적인 본성과 원형을 단련적으로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자연이 지닌 외경심을 문란하고 고요와 고독을 알지 못하고 개발 이데올로기와 담론에 빠져 단기적인 성과주의나 속도주의를 맹신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치료가 더욱 긴급하다고 하겠다.

공리주의의 부산물인 현대도시의 삭막한 콘크리트 건축물과 거리의 기능주의를 생태주의가 지향하는 낭만적인 인간주의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고요와 고독에 근거하는 마음의 생태학뿐이다.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으로부터 움직일 때 도시행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포천의 도시계획은 최소한도 인간의 주거지를 생존의 조건이 아닌 생태주의적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뚫을 때 도시 행정가들도 그 깊은 마음의 힘에 답할 것으로 믿는다.

교육에세이 75

# 좋은 수업이 필요해요



이호연  
영광초등학교 교장

변화하는 미래 사회는 품의 의의시대, 사이버 스포츠시대, 인간 자능을 가진 로봇 탄생, 세계가 1일 생활권이라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한 차원 격상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학교 사회도 이에 병행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수업 흥미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내의 교실 학습 연구보고'에 따르면, 한국·영국·프랑스·일본 등 4개국 초등학교 4학년 23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프랑스 55%, 영국 48%, 일본 43%에 이어 한국이 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도 영국 48%, 프랑스 42%, 일본 19%, 한국 18% 순이었으며, 나는 교

실에서 공부할 때 행복하다는 비율은 프랑스 53%, 영국 43%, 일본 20.9%, 한국 20.8%로 조사됐다.

반면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한국이 72.8%로 프랑스(1%), 일본(0.9%), 영국(0.8%)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41.7%), 프랑스(34%), 영국(32.3%)에 이어 19.9%로 가장 낮았다.

'수업이 재미있다'는 일종의 수업에 대한 흥미도인데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도교사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개별지도에 앞서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는 아이디어가 수업 장면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수화에 대해서 싫어하는 학생에게 수화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수화에 대한 학력 수준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위 수 더하기 3위수'를 지도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 학생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보니 '2위수 더하기 1위수'라는 판정이 되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그 학생에게는 그 수준의 학습지도를 가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일단 한국의 학생들의 '수업이 재미있다'는 반응이 조사대

상 4개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감안할 때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분야라고 본다.

'나는 공부하는 것이 좋다'의 비율도 조사대상 4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넓게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주5일 수업제 도입을 한 이후로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레저 분야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태도를 보면 쉽게만 학습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어려운 내용을 선생님께서 여쭙어서 알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해 버리고 하는 경향이 강한 형편이다. 사회적 상황은 그렇더라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면서 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길러 주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줄 필요가 있다.

'나는 교실에서 공부할 때 행복하다'의 영역도 조사대상 4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부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탐구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알아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갖게 하려면 지적 호기심이 많아야 한다. 지적 호기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성취감을 자주 맛보게 해 주어야 한다. 성취감은 곧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한다'의 조사 영역에서도 조사대상 4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무언일지 몰라도 필자는 오래 전 방문국에서 방영된 일본 영화를 감상했다. 원주율을 고풍학생들에게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도하는 내용을 영화화했는데 컴퓨터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교사 자신이 정교하게 제작한 교수,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훌륭하게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고 교사나 학부모들께서 필히 감상해야 할 영화라고 생각했던 경험이었다. 수업 내용을 교사가 숙지하지 않고서는 학력수준 격차가 천차만별인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을 잘 이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학생들의 수준 차를 고려한 교사의 수준별·개별화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업 방식도 교사가 주도하는 질문과 대답으로만 진행되는 것을 지양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하고, 학습 평가 역시 객관식·단답형 일반도를 지양하고 토론과 논술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다.

교사는 좋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자기 연찬을 계속해야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 비닐쇼핑백, 종이쇼핑백, 각종 비닐포장재 전문생산

## 연혁



- 1983년 : 대봉화학 창업
- 1985년 : 남대문시장 대리점 OPEN
- 1990년 : 동대문시장 대리점 OPEN
- 1994년 : 대봉 테라트 확장 이전(본점 1공장)
- 1996년 : 아우르트(주) 비닐 백 납품개시
- 1999년 : 동대문 밀리오레 납품개시
- 1999년 : 품질 보증 지정업체 선정(Q마크)
- 2000년 : 테라트 산업(주) (종이쇼핑백 구리 2공장) 설립
- 2001년 : 농업 하나로 쇼핑백 납품개시
- 2001년 : 테라트 비닐포장 대리점 OPEN
- 2002년 : 대일 비닐포장 대리점 OPEN

포장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대봉매리트는 기획에서 디자인, 인쇄, 가공, 완제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원라인으로 처리하여 귀사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 비닐 쇼핑백



## 비닐 제품



## 공장·사무실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11-4  
Tel. 031)544-0051  
Fax. 031)544-0052

대표: 임 대 섭